

2024학년도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2025. 2. 3

한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회 심의[자문] 내역

NO.	심의 내역	심의 결과
1	• 발전기금 용도변경 신청 건	자문 완료
2	• 한양대학교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 • 2025학년도 사학진흥재단 융자 배정결과 공지 및 교육부 기재승인 신청 건	자문 완료
3	• 한양대학교병원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완료

첨부 1. 2024학년도 제10차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1부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2024학년도 제10차 회의)		의장	
--	--	----	---

일 시	2025. 3. 2 (월) 16:00	장 소	신본관 제2회의실
참 석 (10명)	[교수평의원] 이상민, 함승환, 김정아, 신동민(ZOOM), 권태원(ZOOM) [직원평의원] 신이식, 장유정, 김혜진 [학생평의원] 이재준(S), 김수겸(G)		
불 참 (5명)	[교수평의원] 정석윤, 신동민 [학생평의원] 이다빈(E) [외부평의원] 강경원, 박종배		

▣ 회의진행

1. 개회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2. 안건1(발전기금 용도변경 신청 건)

- 1) 의장이 발전기금 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2) 객상수 대외협력팀장이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3) 의장이 의원들에게 안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는지 묻다.
- 4) 의장이 노동조합에서 용도변경 신청한 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위원장께 설명을 요청하다.
- 5) 노동조합위원장이 노동조합에서 매월 직원들에게 장학기금 모금을 하고 있고, 과거부터 계속 공제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누적해서 약 2억 후반 정도 기부금이 쌓여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계속 학생들 장학계정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재작년에 이것을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했다가 원래 용도에 맞게끔 다시 또 변경하는 건 이라고 말한다.
- 6) 의장이 한 달에 어느 정도씩 인지 묻다.
- 7) 노동조합위원장이 십시일반으로 금액은 소량이라고 답하다.
- 8) 의장이 노조 회비 안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따로 엑스트라인 부분인지 묻다.
- 9) 노동조합위원장이 그 부분도 사정이 있긴 한데, 따로 했다가 이 전체 금액을 노조기금 안에 다 넣고, 그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넣어서 쌓은 다음에 5천만 원 정도 모이면 기부금으로 모은다고 말한다. 참고로 제 임기 때는 5천만 원이 못 모일 것 같다고 말한다.
- 10) 의장이 대외협력팀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예산 자료들을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미래전략기금의 실체가 무엇인지 묻다.
- 11) 객상수 대외협력팀장이 미래전략기금은 저희가 용도를 작년에 처음 만든 것이고, 그전에는 교육환경개선기금, 총장전략기금 등등 여러 개의 기금이 좀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말한다.
- 12) 의장이 그러니까 이 기금의 용도가 무엇인지 묻다.

- 13) 객상수 대외협력팀장이 용도는 교육, 연구, 장학, 시설 등 broadly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하다.
- 14) 의장이 교육환경개선기금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지금 “한양대학교 84학번 동 기회”는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하다.
- 15) 객상수 대외협력팀장이 지금 미래전략기금의 용도변경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교육환경개선기금이 미래전략기금에 완전히 녹여진 건 아니며 일부만 미래전략기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다. 그런데 여기 총장전략기금이 중심이 돼서 미래전략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일부가 이쪽으로 흡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하다.
- 16) 의장이 그러면 총장전략기금은 무엇인지 묻다.
- 17) 객상수 대외협력팀장이 총장전략기금은 학교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위해 총장실에서 그러니까 총장님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금으로 저희가 마련한 부분이며 교육, 연구, 장학, 시설 4가지 용도에만 broadly하게 쓸 수 있도록 잡힌 기금이라고 말하다.
- 18) 의장이 그럼 현재 총장전략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묻다.
- 19) 객상수 대외협력팀장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0~50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다고 답하다.
- 20) 의장이 그러면 그 40~50억으로 총장님께서 학교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묻다.
- 21) 객상수 대외협력팀장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답하다.
- 22) 1의원이 지금 한양대학교 노동조합에서 기부하셨는데 이 노동조합의 기부금에 대한 소스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주는 기금을 쓰지 않고 이월 시켜서 이것을 장학금이나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쓴 건지, 아니면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자체 내에서 기금을 모아서 장학금으로 기부를 한 건지, 또 최윤아 선생님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미래전략기금으로 360만 원을 내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좀 여쭙보고 싶다고 말하다.
- 23) 노동조합위원장이 첫 번째 노동조합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다고 말하다. 그 금액은 개인별로 내는 금액이고, 따로 급여를 받는 거에서 본인들이 내는 돈이라고 말하다. 근데 이것을 계좌이체 시키지 않고 급여에서 공제해서 노동조합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며, 즉 소스는 개인이 급여에서 별도로 내는 것이라고 말하다.
- 24) 1의원이 노조에 가입하신 교직원분들께서 별도로 내는 돈이 소스가 되어서, 그 적립된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는 말씀인지 묻다.
- 25) 노동조합위원장이 그렇다고 답하다. 일단 기부금을 내는 것이고, 편의상 재무팀에서 공제해서 노동조합 통장으로 모이는 것이며, 노동조합은 그 모은 돈을 관리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다.
- 26) 1의원이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한양대학교 노동조합은 학교에서 어떤 기금을 받고 운영하시는 것인지 묻다.
- 27) 노동조합위원장이 아니라고 답하다. 그렇게 되면 부당 노동 행위가 되고, 노조가 돼 있는 이상은 독립성 때문에 학교에서 그러니까 사측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거 이외에는 돈은 따로 받지는 못하게 돼 있다고 말하다. 하지만 문화 복지 차원으로 형성된 것은 받을 수 있으며, 즉 단체 협약으로 체결된 휴양지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하다. 하지만 노조 전임

자한테 급여를 준다거나 또는 수당을 준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그것을 노동법에서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걸 따로 노동조합에 기금을 사용해서 교비를 준다거나 하면 안 되고, 개인이 받은 급여에서 공제해서 모인 돈이라고 말한다.

- 28) 1의원이 최윤아 선생님도 개인 급여에서 개인 돈으로 360만원을 미래전략기금으로 기부하신 것인지 묻다.
- 29) 노동조합위원장이 맞다고 답하다. 이제 교수님들이 퇴직하실 때 학교에다 기부금을 내시는데 이 경우는 최은아 선생님께서 이 금액을 학교에다 기부금으로 내신 것이라고 말한다.
- 30) 1의원이 미래전략기금 같은 경우는 학교의 미래 전략을 위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인지 묻다.
- 31) 곽상수 대외협력팀장이 최윤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360만원의 기부를 약속하셨고, 그렇게 해오시다가 좀 더 브로드하게 쓸 수 있는 미래전략기금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하신 건이라고 답하다.
- 32) 1의원이 미래전략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판정은 총장님이 하시는 것인지 묻다.
- 33) 곽상수 대외협력팀장이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있고,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총장님께 보고는 드리고 있다고 말한다.
- 34) 2의원이 “발전기금 용도변경 신청서”를 보면 최윤아 선생님이 지금 360만원의 용도변경을 했는데, “총 기부 금액”에는 568만원으로 되어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총금액 전액을 미래전략기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568만원 중에 360만원만 미래전략기금으로 용도변경 하시는 것인지 묻다.
- 35) 곽상수 대외협력팀장이 맞다고 답하다. 5,682,408원 중에 일부는 사용되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기부자님께 확인받았으며, 그중에 일부 금액인 360만원만 옮기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한다.
- 36) 의장이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심의를 마친다고 말한다.

3. 안건2(한양대학교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 2025학년도 사학진흥재단 용자 배정결과 공지 및 교육부 기채승인 신청 건)

- 1) 의장이 한양대학교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 2025학년도 사학진흥재단 용자 배정결과 공지 및 교육부 기채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2) 김민수 기획처장과 김영준 예산팀장이 한양대학교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 2025학년도 사학진흥재단 용자 배정결과 공지 및 교육부 기채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 3) 김준용 기획처장과 한보규 예산팀장이 ERICA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4) 의장이 의원들에게 안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는지 묻다.
- 5) 1의원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병원이야 다 사실 여쭙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대학 의견을 좀 여쭙보고 싶어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13페이지 “법인 및 병원 전입금 수입”의 타 대학과의 비교 자료를 보면 경희대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이화여대 순인데 저희가 이화여대보다 병원 전입금을 더 적게 넣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혹시 경희대, 이대와 비교했을 때 해당 대학의 병원 전입금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는지 묻다.

6) 김영준 예산팀장이 병원 전입금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게 학교마다 전입금 형식으로 받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특히 연·고대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아닌데 병원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은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보다 훨씬 적었는데, 총장님께서 이제 학교 재정이 워낙 어렵고 타 대학에 비해서 병원 전입금이 적다 보니 병원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매년 12억씩 증가해서 전입하라고 강제로 이제 룰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한다.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늘어오면서 저희가 지금 내년 234억까지 받을 예정 이긴 하다고 말한다. 저희가 이대보다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연대, 고대, 경희대보다는 병원 재정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미래관을 지으면서 뭔가 '병원의 재정을 좀 좋게 한 다음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학교로 전입하는 것도 많이 늘리겠다.'라는 이런 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의료 사태가 터지고 그 여파로 인해 미래관 공사가 연기되면서 병원도 신축의학과 공사를 병원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원래 들어와야 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학교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그런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과대학 자체가 학교 예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병원 예산으로 따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그게 병원 특별회계로 회계 자체가 분리돼 있고, 저희처럼 병원이랑 전입금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학교회계, 특별의과대학회계라고 해서 회계가 따로 분리돼 있고 이제 그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말한다. 사실 저희도 병원이 잘 돼서 학교로 전입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는 있지만 그럴지 못한 상황이고 내년도 사실은 모르겠다고 말한다.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의 등록금 관련해서 한번 총장님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의료 사태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했을 때 교육부에서는 3, 4월이면 의료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 총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말한다. 병원에서 저희가 한 200억 이상을 전입 받는다는 가정하에 지금 예산이 돌아가고 있어서 올해와 같이 100억 정도가 또 못 들어오게 되면 학교 재정이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병원이 정상화되고 의료 사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고, 그럴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학교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다. 사실 앞에서 적립금 설명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4년도에 저희가 의료 사태로 인해 병원 전입금 100억이 안 들어왔고 그러니까 예산이 짜여 있는 상태에서 현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라고 말한다. 예산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사실 돈이 안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미 예산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짜여 있고, 근데 현금이 100억이 안 들어오고 법인에서도 100억을 못 준다고 하고, 의대 학생들 휴학 때문에 등록금도 수입이 50억 감소하고, 6층 생활관도 오픈이 연기되면서 생활관 수입도 30~40억이 감소하고 하면서 사실 거의 300억 가까이 현금이 빠졌었으며 그래서 저희가 급여 걱정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제 법인에서도 뭔가 좀 정리를 하면서 100억을 원래 예상대로 주시고, 병원도 사실 적자여서 1학기 때는 못 들어왔지만, 총장님께서 병원장님하고 얘기해 주셔서 2학기 때는 또 100억을 전입시켜주셨고, 지금 거의 산학협력단의 100억이 없었으면 구멍이 날 뻔했지만, 산학협력단과도 잘 얘기해서 특별적립금으로 100억을 받았고, 이렇게 좀 수습하면서 지금 24년도 예산이 돌아가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병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것을 말씀을 드린 건 병원이 저희 계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학교 측도 마찬가지로 의료 사태나 병원 재정이 최대한 좀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7) 2의원이 사실 정리하면 작년 2024년도 회계에서 병원 전입금은 104억이 들어온 것이고,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전입금에 훨씬 모자라게 들어온 것이라고 말한다.

8) 김영준 예산팀장이 반 정도 들어왔다고 말한다.

9) 2의원이 또 하나 정리하면 거의 단순 비교일지 모르겠지만 8페이지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물론 실제 정원이 아니라 들어온 학생 수겠지만, 경희대보다 우리가 700명이 더 많고 이대보다 한 1,700명이 더 많다고 말한다. 물론 이제 단순 비교이겠지만 이 절대적인 학생

수도 적은데 우리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전입 받아서 이 학생들이 더 혜택을 보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의견이 병원 쪽에 전달이 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발표하시는 네 분께서 병원 보고할 때 같이 앉아 계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한다.

- 10) 김영준 예산팀장이 물론 저희가 병원하고 따로따로 놀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전입금을 산정할 때 물론 총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의무부총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서울병원과 구리병원 기획하고도 다 얘기가 돼야 하며, 저희가 이렇게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협의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병원 쪽에서 저희 쪽으로 전입금을 못 준다고 했을 때 저희가 병원 상황을 안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쪽 상황들을 확인하고 이제 총장님께서도 전입금이 못 들어온다는 것을 아마 저희 쪽으로 전달해 주셨으며, 저희도 병원 기획이랑 대책 회의를 좀 세웠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길어질 것으로 생각을 안 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200억 가까이 받아야 했는데 30억씩 감해줬어야 했고, 30억씩 감해 주는 것을 빼면 몇 달은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원래 예정된 만큼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걸 지나고 1학기 내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어져서 총장님께도 계속 보고를 드렸고, 총장님께서도 병원 재정도 어렵지만 2학기 부분만은 전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 11) 의장이 그러면 2025년도로 잡아놓은 병원 전입금 240억 정도는 어떠한 근거로 잡아놓으신 것인지, 모든 것이 다 잘된다는 전제하에 잡아놓은 것인지 묻는다.
- 12) 김영준 예산팀장이 맞다고 답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전입금도 있고 법인 전입금도 있다고 말한다. 26페이지에 “1. 법인 전입금”에 저희가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의 100%”라고 적어놨는데 만약 법인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사업부담금 100%도 못 줄 수가 있다고 말한다. 한 10년 전쯤에 법인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저희 쪽으로 사학 부담금을 50%만 전달을 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법인에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넘겨줘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지만 법인에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교육부에 ‘재정이 어려워서 100%를 줄 수 없다.’라는 공문을 띄운다고 말한다.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승인되면 50%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병원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계속 ‘25년도에 이거 100% 들어오는 거냐?’ 확인했었고, 일단 ‘본 예산에는 100% 잡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법인 전입금도 100%로 잡아놨다고 말한다. 2학기에 가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만약 법인에서 그 2학기 동안에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면 1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50%만 전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승인 요청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법인에서 들어올 돈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해야겠지만 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사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인 부분이라고 말한다. 저희가 내적인 부분은 예산을 조정하든 지출을 감소시키든 원가를 찾아서 해결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외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 13) 김민수 기획처장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 한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또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전입금을 넣어주셔서 어느 정도는 좀 굴러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아마 올해도 지금 예산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와중에서도 학교 재정은 어렵지 않게 그리고 곤란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조금 있다고 말한다.
- 14) 의장이 학교와 병원 재정 상황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최근 언론 보도도 많이 됐던 재단의 한양증권 지분매각 건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재단측은 지분매각이 최근 대학과 병원의 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어 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가량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PF 손실이나 창원 창

고 문제 등 저희도 파악하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단 전입금을 통해 학교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학교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묻다.

- 15) 김영준 예산팀장이 만약에 한양증권을 매각해서 법인에 돈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마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다. 상장증권에서 학교에 대한 지분이나 병원에 대한 지분이 있어서 그 지분만큼만 전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총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총장님께서 아마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법인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총장님께서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아까 경상비 같은 경우도 특별히 24년도에 추가로 더 주신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힘들 때는 법인에서 또 지원해 주신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학교 재정을 좀 맞춰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다.
- 16) 의장이 저희가 이 부분을 언급했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단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라면, 저희 입장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성원이 나름대로 좀 여유가 생기면 좋지 않겠냐고 말하다.
- 17) 김영준 예산팀장이 저희 쪽에서는 총장님을 통해서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학교가 이렇게 재정 상태가 어렵다. 그리고 법인 전입금이 이 정도 더 필요하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하다.
- 18) 의장이 알겠다고 말하다.
- 19) 3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액수가 정해져 있고, 그 기준액에 비해서 현재 한양대학교의 부담 액수 자체가 낮은 수준이며, 오직 66.8%만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이 액수가 또다시 7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다. 그러면 이 소실된 70억 원이라는 금액을 저희 교비에서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사실은 금년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다양한 기금운용에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금액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지 묻다.
- 20) 김영준 예산팀장이 혹시 몇 페이지의 내용인지를 묻다.
- 21) 3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의 경우에는 자료에 적혀 있는 부분이 아니며 제가 별도로 여쭙보고 싶은 부분이라고 말하다.
- 22) 김영준 예산팀장이 법인에서 주는 전입금은 법정부담금이 있고, 경상비 전입금이 있다고 말하다.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고 법정부담금을 저희 쪽으로 넘겨주지 않으면 법인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은 100% 지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70%라는 게 어떤 금액인지, 병원 전입금이 아니라 법인 전입금인지 묻다.
- 23) 3의원이 법인의 법정부담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다. 급여나 건보료 같은 항목에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것이 이제 법정부담금이고, 그 금액을 매년 채워줘야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인이 교육부에 요청해서 승인받는 경우 100%가 아닌 수치로 채울 수 있는데, 그 100%를 채우지 않는 빈도 자체가 최근 10개년 들어서 정말 많은 횟수에 달하여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하다. 그러면 이 교비의 빈공간을 계속해서 다른 쪽에서 있는 교비로 끌어와서 채우는 것이 아닌지 묻다.
- 24) 김영준 예산팀장이 지금은 100% 주시지는 모르겠다고 답하다. 몇 년도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정부담금은 지금까지 제가 있을 때는 계속 100%를 받았었고, 10년 전에 제가 예산팀에 있을 때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법정부담금 50%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으며, 최근 동안에는 계속 100%를 준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다.

- 25) 한보규 예산팀장이 제가 설명드리자면 원래 20학년도까지는 70%가 맞았으며, 21학년도부터는 법정부담금이 100%로 충족했다고 말하다.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100% 보존했는데 법인의 여력이 조금 있는 학교들은 건강보험료까지 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법정부담금 항목에 포함이 안 되고 사학연금만 되기 때문에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학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과 에리카에 보내서 21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100%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다.
- 26) 3의원이 혹시 서울 측 본 예산에 “국가장학금2유형” 증액에 대한 것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지 묻다.
- 27) 김영준 예산팀장이 현재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이 돼 있고,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계속 있다고 말하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도 학생들이 더 많이 신청했는데 안 주거나 그러지는 않으며, 신청한 만큼 그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추경 때 맞춰질 것이라고 말하다.
- 28) 3의원이 이어서 장학금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면 교내 장학금에 대한 수치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 28페이지 “장학기금 인출”에 대한 것이 금년도 들어서 줄어든 점이 다소 의아하다고 말하다. 그것과 별개로 34페이지 “교내 장학금”에 대한 수치에서 금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국가장학금2유형 대체 장학 +30억”을 제외하고는 크게 교내 장학금에 대한 수치가 증가하지 않은 상황인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에서 합의한 대체 장학 외에도 장학금에 대한 수치가 꾸준히 증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혹시 그렇지 않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30억만으로 증가하는 액을 채우려는 것이 아닌지 여쭙보고 싶다고 말하다.
- 29) 김영준 예산팀장이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장학기금 인출”의 경우에는 저희가 25년도 교내장학과 교외장학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은 이 “장학기금 인출”하고는 상관없이 장학금 계정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다. 이 “장학기금 인출”은 저희가 장학 기금을 받을 때 특정 목적으로 받는 장학들이 있는데, 특정 학생이나 특정 학과나 특정 IC나 이런 식으로 특정 목적을 갖고 기금을 받으면 그 기금을 통해서 그 해당 학생한테 해당 연도에 인출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라고 말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교내 장학이랑 이 계정에 있는 것은 별도로 봐주시면 되고, 만약에 추가 인출이 되면 그냥 수입도 늘고 지출도 늘고 보면 된다고 말하다. 28페이지의 “장학기금 인출”이 5천만 원 정도 빠져 있다는 것은 24년도에 저희가 평상시에 쓰던 것보다 일시적으로 누군가가 5천만 원을 더 인출했다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산이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고 지출이 동시에 늘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어 더 추가로 인출하고 싶으면 수입이 늘어나고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본예산에 나와 있는 이 장학기금 인출은 아까 등록금심의위원회 때 얘기했던 장학이랑은 별 상관없을 것이고, 이게 실제로 교외 장학이나 교내 장학 할 때 들어가는 한다고 말하다. 그래서 이걸 그냥 ‘기금 인출해서 나가는 장학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장학금2유형”에 30억이 빠지는 부분은 ‘들어오는 거 외에 장학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도 학생지원팀에서 장학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계속 늘려야 되는 의무가 있고 늘리려고 지금 교내 장학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매년 해서 본 예산 때 1년 후 일을 정확히 예상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다. 그래서 장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잡을 때 대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퍼센트 안에서 다 쪼개져 RC 것까지 다 합친 다음 전체 금액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추경으로 처리가 된다고 말하다. 그리고 장학 지표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보 지표나 대외 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쓸려고 잡아놨고 이 정도를 해야 지표가 그만큼 달성될 텐데 모자란다고 그러면은 그 예산만큼 더 쓰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가야 한다고 그러면 추가 예산을 잡아서 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다. 그런 것은 다 추경 때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얼마나 잡혀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셔도 되고, 저희가 등록금심의위원회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너무 학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학생들하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킬 거라고 말하다. 그게 물론 예산상으로 저희가 내려드린다고 하더라도 RC나 학생지원팀에서나 그걸 다 못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학생하고 약속한 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내려가야 한다.’라고 압박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하다. 어차피 12월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시작할 텐데 거기서 장학이 지금 얼마나 나갔고 하는 자료를 계속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확인하고 중간중간 확인하고 있으니 ‘저희가 약속한 거를 줄인다.’ 그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하다.

30) 의장이 저희가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싶은 개념이 뭐냐면 지금 15년 동안 학부 등록금이 동결돼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4.95%로 올렸고, 이제 올렸다는 얘기는 어쨌든 플러스로 원가가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국가장학금2유형” 같은 경우에 한 33억인가를 포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때 ‘이번 4.95%로 올린 거로 얼마가 들어왔는데 또 얼마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 결과는 얼마로 됐는지’를 단순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편할 것 같다고 말하다. 저도 아까 발표하실 때 이 액수들을 계속 따라가 봤는데 이게 학부 등록금과 또 대학원이 있고, 70억, 30억 해서 지금 어느 부분에서 33억을 계산해야 할지 제가 놓쳐버렸는데 이걸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묻다.

31) 김영준 예산팀장이 저희가 학부 같은 경우에는 15년 만에 인상했다고 말하다. 그래서 학부 인상분이 56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대학원 인상분과 외국인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학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상을 하면서 학생회랑 여러 가지 좀 협의 사항들이 있었다고 말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억 정도가 “국가장학금2유형”에 누락 되는 부분을 메워줄 거고, 56억 중에 거의 다 학생 쪽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하다. 학생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저희가 다 수용했고 56억 중에서 56억을 거의 다 학부 학생을 위해서 쓴다고 말하다. 외국인이나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사실은 그 해당하는 인상된 데만 쓰는 건 아니며 그게 전체 수입에 녹여져서 전체적으로 다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학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인상을 하면서 학생들 하고도 좀 좋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타 대학 같은 경우에 인상한 걸 보면 학교 측이랑 학생 측이랑 반대표도 있고 한데, 저희는 전체가 다 찬성을 한 상태라고 말하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억 플러스 15억이 이제 학생들이 노후 환경 개선 쪽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 쪽에서 요청했던 것이 학생회 지원비랑 브랜딩 강화인데, 어쨌든 요청했던 금액들에 56억이 거의 다 학부는 학부 쪽으로 녹아 들어가게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다. 지금 그 협의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까 봐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점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하다.

32) 의장이 근데 작년까지도 보면 등록금은 못 올렸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우회로로 외국인 학생들하고 대학원은 꾸준히 계속 올려왔다고 말하다. 그래서 학부는 동결됐었지만, 사실은 등록금 수입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 적은 없고 계속 흑자였다고 말하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4.95%로 올려 계산해서 차익이 남아 그걸 학생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나름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여유가 좀 있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물가 상승분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게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 우리는 올릴 생각인지 묻다.

33) 김영준 예산팀장이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상황을 보가면서 해야 하겠지만, 이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끝났고 25년도 등록금 인상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26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말하다.

34) 의장이 인상분들을 보면 지금 학생들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셨다고 말하셨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낸 인상분만큼, 물론 돌아가는 액수가 아까 말씀하신 노후 개선이라든지 하는 데 얼마만큼 제대로 반영됐느냐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명분상으로 봤을 때 올린 만큼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 본인들에게 즉 수요자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계시다면 물론 등록금심의위원회

에서 내년 내후년은 퍼센트 조정들이야 있겠지만, 나름의 그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하실 의향이 있냐는 것인지 묻다. 지금 특히 중국 학생들이 메워주고 있는 이 부분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렇게 학교 측과 학생들과 이런 이야기를 갈등 없이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싶다고 말한다. 제가 그래서 김영준 팀장님께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중국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의 등록금을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저게 무한정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느 지점에 갔을 때는 굉장히 큰 반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더구나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6천 명 가까운 외국인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학교인데 그만큼 외국인 학생 모임 또는 외국인 학생회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등장하는 추세라고 말한다. 과연 언제까지 소위 말해서 그들에게 의지하는 예산 그래서 항상 팀장님도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도 이제 학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나름대로 어떤 멀티플한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35) 김영준 예산팀장이 사실 학부랑 이번에 인상하면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학생들한테 설명했고, 학생들도 그 중장기 계획에 본인들 인상하는 부분이 투입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전체의 찬성으로 등록금 인상에 의결했다고 본다고 말한다.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도 계속 자료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금이 한 135%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 일반대학원이 125%, 전문 특수대학원이 한 111% 정도 차이가 나며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한다. 외국 대학의 같은 경우에 내국인하고 외국인의 등록금 차이가 중국에서도 2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나고, 해외 우수 대학들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할 때 교육부에서 많이 연락이 왔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직접 찾아왔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저희가 등록금 동결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타 대학에 비해서 약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학은 등록금을 올리고 저희는 동결이 된다면 경쟁력을 완전히 잃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저희가 대학 중앙일보 평가가 예전에 2위 하다가 지금 5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저희가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고대나 연대 같은 병원이나 법인으로부터 전입금을 많이 받는 데는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고 말한다. 시설적인 것이나 교수님들 섭외도 그렇고 우수 연구 교수님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라든지 이렇게 평가 지표에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 학교들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온 것이지 저희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을 선제적으로 올렸고, 교육부에서는 계속 동결을 요청했지만, 저희는 만약에 동결하게 되면 타 대학하고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질 것을 걱정해서 사실은 학생분들하고 회의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6차였지만 회의는 12번 이상 더 추가로 했고 거의 20번에 달하는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협의를 전체적으로 얻어낸 부분이라고 말한다.

36) 의장이 알겠다고 말한다.

37) 4의원이 제가 조금 더 여쭙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법인과 병원 전입금이나 기부금이 감소가 됐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왜 그랬는지’는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다.’든지 ‘해결책을 어떤 것들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방향 제시 정도는 어느 정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 증가했고 얼마 감소했다고 하는 액수 대신에 사실은 증감률로 표현해 주시는 게 우리가 변화를 인지하고 어떤 추이들을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꼭 증감률에 대해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 다른 대학들에 대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학교들 예산상의 절대적인 규모 외에 각 대학의 연구 인력 규모 혹은 연구 인프라라든지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노멀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한양대학교 구성원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이 문제이거나 강점이고, 그에 대한 발전 방향이나 개선책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입금 특히나 기부금에 대한 감소가 좀 뼈아픈

데, 그에 대한 원인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타 비교 대학과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을 경우 우리 학교의 예산상 운영 위치라든지 규모 방향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고 말한다.

38) 김영준 예산팀장이 타 대학 자료 비교 분석한 것을 노멀라이제이션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 타 대학이 자기 내부 사정을 그렇게 오픈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보 공시, 고등교육 통계자료, 결산처럼 이렇게 외부에 오픈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대학별 상황을 저희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39) 4의원이 말씀 중에 죄송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여쭙봤냐면 이것들이 지금 전체 교수님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수님들이 연구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압박들로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자료들은 굉장히 자세히 잘 가지고 계신다고 말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타 대학들의 미니멈을 그러니까 그들의 평균치를 자꾸 제시한다든지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의 집행 내역에서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현황은 어떨다.'라는 것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고 서로 공통의 이해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연구나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 자료들은 아주 세세히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 형평성이나 균형을 좀 맞추시면 어떨지 하는 그런 의도인데, 다른 대학에 대한 인력 구조들이나 교수가 몇 명인지, 학생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구하기가 어려울지 몰라.

40) 김민수 기획처장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오늘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추경과 본예산 편성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고 또 예산팀에서 짠 내용을 먼저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 말씀해 주신 것과 더 관련 있는 것은 기획처에 평가팀이 있으며,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세계 평가라든지 중앙일보 평가라든지 이런 지표에 훨씬 더 자세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한다. 교수 수라든지 연구력이라든지 또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지표들이 이제 평가팀 쪽에서 지금 다루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이제 평가팀과 자료를 같이 놓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또 저희가 이번에 '아이디어센터'라고 해서 그 자료들을 좀 분석하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열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41) 4의원이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팀이든 기획처든 총무처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규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가 좀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싶습니다만 자꾸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쓰는 돈의 규모와 그리고 대학의 평가 순위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대학으로 도약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예산들이 어떤 규모인데 이 규모가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연구력과 또 교육에 어떻게 투입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그런 예산의 규모와 대학 평가들에 대한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까운 정도로 심하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 기획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 '우리는 별개로 일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분석하기가 힘들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42) 김민수 기획처장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43) 5의원이 32페이지와 47페이지의 "서울캠퍼스 교원 및 직원 인원 변동사항"을 보시면, 일단 교수님들 순증이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은 27명 그리고 올해에는 46명을 예상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런데 직원 선생님들은 순증을 보면 작년에는 2명이 그리고 올해는 0명이며 에리카는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말한다. 지금 교원들은 25년도에는 17명이 순증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 선생님들은 작년에 -1명으로 오히려 직원 수가 감소했고 올해는 0명이라고 돼 있다고 말한다. 교원들이 이렇게 순증한 46명이라든지 17명의 명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산출된 자료들일 것이고 예를 들면 새로운 한양인턴칼리지에 무슨 교

수가 필요하다는 식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직원은 그냥 지금 있는 명수가 제일 최적이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 수만 예상한 것이라면, 그러면 아까 4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교육 체계를 바꾸고 또 새로운 사업도 하는데 ‘직원은 지금 그 수가 가장 최적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는 분명히 ‘우리 교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하는 부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인사팀인데, 그러면 인사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동되는 직원에 대한 처우라든지 직원의 수라든지 그러니까 일할 직원의 수를 지금 최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많다고 보는 전체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텐데,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인지 묻다. 어떤 식으로 이런 순증의 숫자나 감소의 숫자가 나오는 것이며, 에리카는 정말 -1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지금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보고 싶다고 말한다.

44) 김영준 예산팀장이 인원 변동이나 예정이나 이런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무에서 예상해 주고,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예상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예상된 인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직원 보수랑 교원 보수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적정하다’, ‘안 하다.’는 사실 예산팀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 ‘교원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많은데 직원은 적다.’라는 부분에 대해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무에서 사실은 TO를 할당받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TO를 할당받는다고 해서 이 TO만큼의 전체가 다 교원이 임용되는 건 아니고 TO를 맥스로 해서 받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교무에서 예상하는 TO 중에서 한 60% 정도밖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저희가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예산상으로 ‘이 정도 TO를 예상하면 예산을 얼마나 잡아야겠다.’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지 ‘이게 적절하다, 몇 명 더 뽑아야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예산팀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45) 5의원이 그러면 교무팀에서는 TO 산정에 대해서 TO를 받는다는 것 같다고 말한다. 각 부서에 필요한 TO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인사팀에는 여태까지 부서에서 그런 TO를 요청하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저는 사실 못 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지난번에 한양인터칼리지를 하면서 단과대 인원을 다 빼갔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마치 인원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지금 인원이 딱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여져서, 애초에 인사팀도 TO를 산정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46) 김영준 예산팀장이 그 부분은 노동조합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묻다.

47) 노동조합위원장이 다른 위원분들도 계시고 참가하신 분들도 계셔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일단 문제의식은 이제 4의원님이랑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1년 계획이 직원에게 있어서는 제대로 운영 계획이 없고,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창구가 아니라 다른 창구에서 얘기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희가 단체협상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요구했는데 1년 계획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일단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그럴지라도 1년 계획을 학교에서는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정도의 자료는 굉장히 부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고, 게다가 보수 측면에 있어서 직원뿐만 아니라 아마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총인원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면 그 실제 실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저희가 신입 직원 퇴사율이 22%가 넘고,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20개 대학을 비교하면 3위이며, 20개 대학이 평균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 통계를 낸 거고 여기에 주요 사립대는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한다. 거기서 3위라는 얘기는 평균을 따지면 한 10% 정도라고 말한다. 20개 대학의 평균이 그리고 보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물어 있겠지만 여기서 저희가 그냥 단순 뭐 30년 근무한다고 치면 중간 정도가 한 9위 정도이고, 시간당 급여를 따지면 한 13위 정도 된다고 말한다. 아마도 저는 교수님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사실은 우수한 교수님과 우수한 직원을 모셔야 학교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학교는 사실 기계와 기구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고 인력의

역량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학생들이 많이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희가 교수님들이 TO를 학과에서 받고서 한 학기마다 운영하는 걸 저는 알고 있고, 직원들은 그게 공식적인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인사팀에서 수용 인력의 수요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부분이 공식화되는 창구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적어도 1년 계획 정도는 가지고는 있어야 하며, 요구를 하지만 답변은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요구는 계속 저희가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그 차원에서 혹시 이 자리에서 예산팀이 그것에 답변해야 한다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며,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서 직원 대표로서 해결하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한다.

- 48) 의장이 제가 그동안 좀 헛갈렸던 것 중의 하나는 뭐냐면 30페이지를 보시면 “2025 주요 전략예산 편성 내역”이 나오는데 “1. 경계를 초월하는 교육”, “2. 세상을 바꾸는 연구”, “3. 품격을 갖춘 경영”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3. 품격을 갖춘 경영”이 액수가 제일 많고 지금 1,244억이라고 돼 있다고 말한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이름을 누가 짓는 것인지 묻다. 소위 말해서 총장님이 바뀌면 그때그때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비전이랄까 그런 거를 입혀서, 그러니까 원래 세 가지는 뭔가가 있는데 거기에 본인만의 약간의 색을 입힌 것인지 묻다. 그래서 “3. 품격을 갖춘 경영”에 각 항목을 보면 이게 품격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런 1,244억이 예정이 돼 있는지 묻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전 총장님 때는 안 썼던 이름이겠고, 품격 경영은 현 총장님의 발전전략 몇 가지 중 한 가지 아니냐고 묻다.
- 49) 김영준 예산팀장이 저희 예산팀에서 정한 건 아니고 아마 총장님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그 제목은 사실 “1. 경계를 초월한 교육”, “2. 세상을 바꾸는 연구”, “3. 품격을 갖춘 경영”으로 앞에 붙은 단어들은 뭔가 총장님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크게 봤을 때 교육 분야, 연구 분야, 경영 분야가 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분야와 관련돼 있는 예산을 지금 분야별로 “경계를 초월한 교육, 세상을 바꾸는 연구, 품격을 갖춘 경영”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쓸 때 교육, 연구, 행정에 관련된 3개로 큰 방향으로 나눠지고, 그 전략 방향이 이제 총장님께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획처의 기획평가팀하고 같이 아마 전략 방향과 전략 과제를 세운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거기에 맞는 분야로 저희가 예산 집행 내역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로 이 분야가 총장님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교육, 연구, 행정이 지금 총장님은 30페이지에 보이시는 것 같이 제목을 붙이셨지만, 아마 이전 총장님도 결국은 예산을 크게 세 분야로 나누게 되면 교육, 연구,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한다고 말한다.
- 50) 의장이 “2. 세상을 바꾸는 연구”의 가운데를 보면 “우수교원 채용을 위한 환경 구축”이 2억 5천 정도만 지금 증가했는데 이건 아마 교무처에서 올렸을 테니까 제가 예산팀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기획처장님께서도 인사위원회에 들어오시니까 ‘신임 교수들 대상으로 서베이 돌렸더니 우리 학교 교원 임금이 2천만 원 이상 지금 덜 받고 있다.’라고 교무처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신 것을 들으셨을 것이고 본부에서조차도 그건 지금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좀 다뤄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 51) 의장이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심의를 마친다고 말한다.

4. 안건3(한양대학교병원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

- 1) 의장이 한양대학교병원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2) 김희진 기획조정실장과 손진석 기획팀장이 한양대학교병원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3) 정진환 기획조정실장과 박용범 기획팀파트장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4) 의장이 의원들에게 안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는지 묻다.
- 5) 1의원이 말씀 잘 들었고 많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다고 말하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텍스트로 담겼으면 좀 더 저희한테 호소력 있게 좀 다가오고 저희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말하다. 사실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도 대학이랑 병원 전입금 문제로 한참 얘기를 했고, 그거를 대놓고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대학이랑 많이 고민을 좀 했다고 말하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작년에 104억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병원에서는 102억이라고 말씀하셔서 또 오차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으나 혹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239억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들어올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다고 말하다.
- 6) 김희진 기획조정실장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그 돈을 드릴 수가 없어서 못드리고, 대학에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을 못 했고 9월부터는 저희가 진행을 한 상황이라고 말하다. 하지만 2025년에는 전출금을 저희가 2023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서울은 59%, 구리는 42% 비율로 했고, 2024년에는 원래 저희가 73%를 전출해야 했었는데 40.1%만 대학에 전출해서 다 지급을 못 했다면, 2025년에는 원래 계획대로 저희가 89.1% 전출 총액을 달성할 수 있게끔 기본급과 이런 거 다 추가분으로 해서 2025년 전출금으로 서울은 141.1억 원 그다음에 구리는 98.1억 원으로 총 239.2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답하다.
- 7) 정진환 기획조정실장이 구리병원에서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2024년 1월에 병원 개원 이래 최고 매출을 올렸고 작년 12월에 매출 2위를 했는데 어려운 상황은 맞다고 말하다. 솔직히 교수님들을 뒹달해야 하는데, 지금 추세로 나간다면 예년 2023년도 정도의 성과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추정해서 저희는 아마 98억 정도의 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다.
- 8) 1의원이 이제 대학에서 예·결산 보고를 받을 때 보통은 재무제표와 같은 예산, 결산의 표 말고 타 대학이랑 비교한 자료도 있다고 말하다. 저희가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타 병원과 비교하는 자료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도 좀 더 이해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다. 아까 정진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저희에게 구두로 말씀 주신 내용들이 좀 텍스트 자료로 제공 가능하다면 그 부분만 좀 더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도 많은 이해와 공감이 될 것 같고, 부탁을 좀 드리겠다고 말하다.
- 9) 정진환 기획조정실장이 일단 구리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리를 할 때 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부천성모병원 이렇게 네 군데 병원하고 비교한다고 말하다. 물론 교수 임용 숫자나 여러 가지 조건들의 차이도 있고, 우리가 이 4개 병원 중에 비교하면 안 되는 병원도 있고, 저희가 따라가야 할 병원도 있다고 말하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그 자료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다.
- 10) 의장이 이제 준비하시는 기초실장님이라든지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데에 있어 생기는 차이인 것 같은데, 한 2년 전까지는 병원 측 보고에서도 학교 측에서 보고하는 같은 동일한 양식 같은 게 있었다고 말하다. 대략 사용하는 통계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을 별표나 굵은 글자체 등을 이용하여 간단히 그 표 밑에다가 텍스트로 첨부했다고 말하다. 지금 보면 대학교 측 자료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단순한 표의 나열만이 아니라 그 표 안의 변동 사항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든지 좀 더 설명해야 할 어떤 부분들을 밑에 간략하게 텍스트로 부연해 준다고 말하다. 특히 여기 앉아 계신 평의원님들 같은 경우 단순히 ‘몇천억이 얼마다.’ 같은 숫자의 단순한 나열 그 자체보다는 그 전후의 변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해석과 같은 부분들에 대단히 목말라 있다고 말하다. 처음에 정진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만약 그러한 통계자료들 밑에 텍스트로 설명되어 있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제 기억에 언젠가부터 이렇게 그냥 단순한 예산표만 담긴 엑셀 표만 제출했는데, 3페이지에 보면 그냥 간략하게 “제1조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의료원 예산 다음과 같다.”라고 통치고 그다음 페이지부터는 그냥 쪽 표들만으로 계속 나와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획조정실장님들께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을 따로 요약해서 그걸 텍스트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이전까지는 그 양식들이 있어서 병원이 학교와 비슷한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가 진행이 됐었는데, 제 기억에 한 3년 전인가 그때부터 그 양식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달랑 엑셀 파일만 가지고 오셔서 표만 계속 읽고만 계시더라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까 1의원께서도 지금 말씀드린 양식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가독성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서 이상한 질의들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발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다 얘기한 건데 그걸 왜 또 질의하느냐 싶지만, 의원들께서는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좀 프렌들리하게 준비해 주시면 오히려 전체 보고와 심의 시간이 훨씬 더 절약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 11) 김희진 기획조정실장이 혹시 지난해에 받으셨다는 자료가 항목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묻다.
- 12) 의장이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런 변동 사항 되는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게 지금 구두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수치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텍스트화된 자료라면 오히려 중복된 질문거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료 사태가 워낙 주지의 큰 사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 저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러한 사안일 것이라고 말한다. 의장으로서 병원 관계자분들께서 워낙 힘든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걸 너무나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수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악화되었나?’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올해의 경우에는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며, 다른 의원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심정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 13) 의장이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심의를 마친다고 말한다.

5. 폐회

의장이 2024학년도 제10차 대학평의원회 자문회의의 종료를 선언하다.

▣ 2024학년도 제10차 회의 결과 요약

- 안건1. 발전기금 용도변경 신청 건 : 자문완료
- 안건2. 한양대학교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
2025학년도 사학진흥재단 용자 배정결과 공지 및 교육부 기채승인 신청 건 : 자문완료
- 안건3. 한양대학교병원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 : 자문완료

“끝”

대학평의원회 의 장 이상민



평의원 정석윤

부의장 신이석



평의원 함승훈



평의원 김정아



평의원 권태원



평의원 김혜진



평의원 이다빈

평의원 강경원

평의원 신동민



평의원 장유정



평의원 이재준



평의원 김수경



평의원 박종배